

‘인구 3만’ 곡성의 미래 귀농·귀촌에 달려있다

이낙연 도지사 ‘군민과의 대화’서 인구 유입 지원 강조 군민들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유치’ 등 발전 방안 건의

인구 3만명을 갖 넘는 곡성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불집기, 문화·관광자원 집중 홍보를 통한 관광 수입 증대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및 청년층 이탈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전남도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의 곡성 이전을 강력 건의했다.

지난 31일 전남도와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곡성군의 인구는 3만732명으로, 전남(190만5780명)의 1.61%, 고령인구는 8782명으로, 군 인구의 31.83%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예산 2775억9200만원 가

운데 자체수입은 193억2300만원에 불과해 재정자립도는 7.44%다. 그야말로 ‘미니’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오후 도정보고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곡성군을 찾은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러한 곡성을 ‘전남의 축소판’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이 전국에서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청년 인구의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례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인구 증가나 소득 증대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 지사는 “(곡성 인구가) 주변의 큰 지자체, 즉 순천, 남원, 광주로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흘러들어오는 곡성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전남의 축소판이 곡성이며, 곡성이 성공하면 곧 전남이 성공한다는 자세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곡성군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1000만송이 장미공원, 섬진강기차마을 등 아가자기한 관광자원 연계, 귀농·귀촌시책 역점 추진, 다품종 소량생산을 이끄는 강한 중소농 육성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곡성군에는 민선 6기 들어 26세대 96명이 귀농·귀촌했으며, 오는 2018년까지 군 인구의 10분의 1인 3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곡성군의 목표다.

멜론, 딸기, 사과 등을 명품 작목으로 키

운 곡성군은 들깨, 고사리, 토란 등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해 곡성군 삼기면 고소리 산77-1외 9필지 5만2924㎡를 마련해놓고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곡성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 추진(352억원), 숲과 함께 성장하는 곡성(25억 5000만원) 등 현안 사업과 교육청~매일시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곡성을 학교 주변 보도 설치 등 재정사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군민과의 대화를 마친 후 곡성을 귀농·귀촌인재센터, 이정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방문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공공요금 잇단 인상에 전북도민 ‘허리 휘청’

전북도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 방침에도 각 시·군의 상·하수도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하수도 요금을 4월 사용량부터 36%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t당 398원으로써(당 845원)의 47%에 불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수도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17년에는 현재보다 2배까지 오르게 된다.

또 2009년부터 동결됐던 음식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4월 하순계부터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수수료는 t당 30.7원에서 60원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은 37.4원에서 7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어 고창군도 조간만 상수도 요금을 12% 인상하고, 정읍시는 올해 하수도 요금을 25% 올리기로 했다.

전북도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6대 공공요금 중에서 도시가스(8.2% 인하)를 제외한 시내버스·택시·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거의 동시에 인상된 것은 각 시·군이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난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탓에 올 들어 공공 부분의 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봄맞이 힘찬 페달

자전거타기운동연합 군산지부(회장 나기택) 동호인들이 최근 시륜제(始輪祭)를 지낸 후 은파 호수공원에 서 금강 습지공원까지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군산=박근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장흥 안양농협 조합장 피선거권 자격 시비

전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전직 농협조합장이 당선된 현직 조합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따르면 전직 조합장인 S씨는 “지난 11월 치러진 장흥 안양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K 조합장이 ‘농협 정관 69조(피선거권)를 위반,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며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제기했다.

S씨는 “K 조합장은 동 조합 회회사인 광역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비상임 감사자격으로, 안양농협 조합장에 대한 후보등록 및 피선거권이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이 같은 직무정지 신청을 냈다.

S씨는 소장에서 “K 조합장이 후보등록일(2월 24일) 이전인 2월 23일까지 자회사 임원직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안양농협에 사직서를 제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 조합장은 “등기상 광역 친

환경 영농조합법체 비상임 감사로 등재된 부분은 인정하나, 이미 후보등록일 전인 지난 1월 30일 사직서를 안양농협 실무진에 제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 조합장인 S씨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원체가 안양농협 자회사이지만 10년 이상 경영을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법인체일 뿐 아니라 모든 임원 임기가 2013년 1월 말로 만료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목포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향연

오늘 두차례 정기공연

목포 평화광장 앞 밤바다를 빛과 음악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춤추는 바다분수’ 향연이 시작된다.

지난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겨울철 시설물 정비와 다채로운 음악 연출과 기능을 보장, 4월 1일 새로운 모습으로 올해 바다분수 정기공연을 시작한다.

공연 시간은 봄(4~5월), 가을(9~11월)에는 오후 8시와 8시 30분에 열린다. 여름(6~8월)에는 밤 9시와 9시 30분이 다. 금·토요일은 1회 추가된다.

월요일은 시설물 점검을 위해 운영하

지 않는다. 관람석 물방울 휘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풍속이 초속 6m 이상이면 가동을 중단한다.

공연이 시작되면 클래식, 팝송, 가요 등 다양한 음악과 분수, 워터스크린 영상 및 레이저쇼 등 화려한 연출로 평화광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멀티미디어 영상 상영으로 현실감 있는 공연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바다분수는 가로 138m, 세로 59.58m, 분수노출 276개, 최대 분사높이 70m로 세계 최초·최대 부유식 분수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강진 ‘병영 설성사또주’ 4월 전남 대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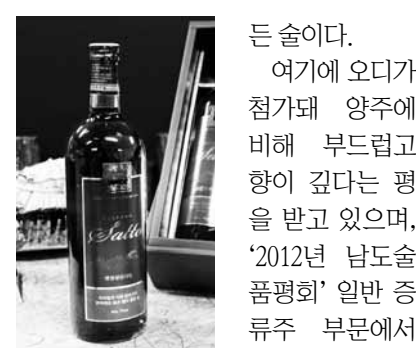
60년 장인이 만든 전통발효주

전남도는 4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100% 국내산 쌀로 만든 강진 병영주조장의 ‘병영 설성사또주(사진)’를 선정했다.

강진 병영주조장 김경식 대표는 20세에 술 만들기에 입문해 지난 58년간 술 만들기를 고집해온 장인으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았다.

‘병영 설성사또주’는 조선시대 강진 병마절도사들이 즐겨 마시던 전통주로 장기간 숙성 과정을 거쳐 향취가 은은하고, 40도의 고도주임에도 목 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다른 소주와 구별된다.

특히 ‘병영 설성사또주’는 희석식 소주가 아니고 전통방식으로 100% 국내산 쌀을 발효시켜 각종 한약재와 청정자연의 재료들을 첨가해 전통 방식으로 만



든 술이다. 여기에 오디가 첨가돼 양주에 비해 부드럽고 향이 깊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2012년 남도술 품평회’ 일반 증류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병영 설성사또주’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750ml 1병 기준 2만원이다. 문의 061-432-1010 병영

한편 주조장이 위치한 강진 병영면은 조선시대 호남지방과 제주도를 방위하던 전라병영성이 위치한 요충지였다. 전라병영성은 조선 태종 때 축조해 1894년 동학농민전쟁으로 불타고 폐망되기까지 조선시대 500년간 전라지역 육군의 총지휘부였다.

／윤현석기자 chadol@

목포교육청 초등학교원 자율연수

학생참여 수업 활성화 논의

목포 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현주)은 지난 23~27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등학교원 자율연수를 실시했다.

‘교사의 열정으로 만드는 행복한 교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자율연수에 있는 초·중·고교원 221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 주제는 참여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몸과 마음으로 여는 학급놀이 ▲독서·토론수업의 실제 ▲스마트 교육의 이해 ▲인성교육 중심 수업 ▲미래 핵심역량 강화 등 신학기 학생들의 학교적응

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학생참여 중심 수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과물을 풍부하게 하는 수업, 나눔과 배려를 통해 함께하여 즐거움을 배로 만드는 수업,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방법 등을 연수했다.

문현주 교육장은 “품격있는 목포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열정이 필요하며, 열정을 발휘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남로 4가 대로면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모래 화순군 도곡면 대지 1671㎡(505) 건평 1010㎡(305) 4억 5천
- 사할, 기도원, 요양시설 적합 보성군 문덕면 땅 2092㎡(633) 건평 874㎡(264) 은행 1억선 매도 1억 7천
- 레스토랑, 커피숍,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중에서 5분거리 영업장 뒀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3천 교환가능 5억4천
- 유동 로타리 인근 4차선 도로 상업지 대지 335㎡(101) 건평 601㎡(185) 종사지가 3억9천 은행 2억2천 매도 4억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원룸 22개와 투룸 8개 건물 대지 497㎡(150) 건평 1490㎡(451) 은행 5억선 보증금 1억3천선 월 500선 수익 7억7천
- 서구 치평동 유류업 중심건물 대지 746㎡(226)건물 4617㎡(1397) 은행 30억 보증금 4억6천 월 4600 선수익 매도 63억
- 영암군 월출산 관광지사설지구 대지 1026㎡(310) 건물 2085㎡(630) 민박·식당·매점 등의 시설 은행 8억5천 매도가격은 협의함, 전화요망

투자·매도·교환

- 조선대 앞 대로면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외 인질,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선 수익 8억7천
- 화정역 5분거리 대지 645㎡(195) 별장용 단독주택 등 적합 3억
- 펜션 별장 등 적합, 나주시 산포면 790㎡(234) 1억
- 진도군 고군면 백파리산 16860㎡(5100) 2천 5백만원
- 신안군 충도면 솔로시터에 있는 집중지 2248㎡(740) 3억 3천에 매입했던 물건임, 은행 1억9천 매도 2억4천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역 1117㎡(338) 전체 92천 월 210 건물신축에 적합 12억
- 전일주택개발·물류창고·공장 등 적합 광산구 삼기동 계획관리지역 33000㎡(10000) 28억
- 동명동 조선대 부근 시설 좋은 고사철 대지236㎡(71) 건평732㎡(221) 60실 공실없음 은행 3억 4천 월 1200만원 수입 안정적인 노후생활적합 8억 3천
- 동구 금동 상업지역 2층 주택 대지192㎡(58) 건평 193㎡ 임대 3600에 50 교환 가능 2억8천
- 신안군 자문면 신축 펜션 22688㎡(813) 펜션은 20평씩 3층 장기적인투자까지 안호환 1억 1500만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초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3억8천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불향면 죽서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 7억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전 2,820㎡ 2차선도로변 광주시 대충동경계 매1억7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참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담7,610㎡ 2차선 국도변 도로변, 투자유망매1억5천만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1,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 ▶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전(임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변, 자연녹지, 판매장 적합 투자 유망 매1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해남토지개발

■산이면 구성지구
해남기업관광도시 (J-프로젝트) 토지보상계획지역내토지 650평 평당 13만원 (공시지가 1.3배 가격임)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위원회 구성중 1년내 70%이상 이윤실현가능 2015년 하반기 보상에정

■문내면 석교리 관리지역
낮은 아산임 5300평 평당 2만 5천원 (폭 6m이상 현황도로 있음) 개발행위허가 가능 목포 생활권임

용도

주택, 밭, 과수원, 목장 사료/퇴비공장, 창고, 태양광(사전준비) 모두가능

문의전화 (지주직접)
010 - 7979 - 8257

工場매도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기획관리지역)

- 공장부지 : 대지 14,540㎡
- 도로 : 대형차량 진입 (광주간 15분대)
- 매도금액 : ㎡당 300,000원
- 기타 : 부지, 건물 분할매매 등 협의가함.

건물(근래신축)

길이 폭 높이

1동 1160㎡ (58×20×18m)
2동 1060㎡ (53×20×18m)
3동 330㎡ (관리동)

조 건

광주근거리 최고의 투자가치 정사각 대형 부지로 차량 출입,운반용이 물품적재 등 최적조건 갖춤.

010-5059-5260

법원경매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식당촌인점 지하층~지상4층 숙박시설 대지1,671㎡ 건물 1,010㎡, 위치좋은 감정가6억2천 최저가6억2천, 투자적합

동구 총장로5가 도로점 상가밀집 중심상업구역 대지155㎡ 건물628㎡ 감정가5억6천5백32만원 최저가4억

부동산 재테크 전문

담양군 금성면 근린시설대지 30,308㎡ 2층건물 2,916㎡ 현재 민속박물관(요양병원, 수련원,전원주택개발가능) 감정가28억 최저가10억

북구 충효동 전1,147㎡ 추가정밀원 식당이주단지인점 투자적합,충효동 물건다수보유 최저가 6천5백만원

부동산개발 및 경,공매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010-7147-4989